

지방대학의 특성화 추진현황과 미래과제

오 영 재 | 고려대학교 인문대학 교수

I. 들어가는 말

지방대학들은 지금 심각한 위기국면에 직면해 있다. 2002학년도 현재 지방 4년제 대학 신입생 미충원율이 7%에 이르고 있으며, 이는 2001학년도의 2배에 이르는 수치이다(동아일보, 2002. 10. 18; 조선일보, 2002. 12. 17). 이러한 경향은 2003학년도에 들어서면서 더욱 악화되어 신입생 무더기 미등록사태가 발생하고 있기도 하다(중앙일보, 2003. 2. 12).

재학생들의 유지(Retention)에 있어서도 예외가 아니다. 어렵게 신입생을 모집해 놓으면 재학생들이 일시 휴학하거나 다른 대학으로 편입하는 학생이 끊이지 않고 있다. 재학생들은 편입, 재수, 휴학 등의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지역 간·학교 간 이동을 시도하고 있으며, 대체로 전문대학에서 4년제 대학으로, 지방대학에서 수도권 대학으로의 이동이라는 먹이사슬 구조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교육인적자원부가 4년제 '국·공·사립 일반대학'의 휴학생 현황을 집계한 결과 2000학년도 1학기 현재 편제정원의 30.5%인 508,647명이 휴학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2000학년도 2학기 대학 일반편입생은 전국 84개 대학 6438명으로 1999년 2학기 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조사되었다(매일

경제, 2000. 12. 4).

통계지표상 지방대학은 취업률에 있어서 수도권 대학에 비해 약 5%정도 낮다. 그러나 취업의 질적인 면에서 본다면 그 차이가 심각하다. 예컨대, 대기업의 경우 80% 이상이 수도권 대학 졸업생이며, 각종 국가고시 합격자의 90% 이상이 수도권 대학 출신이다(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00).

이와 같은 지방대학의 위기는 기존의 방만한 대학정원 확대정책과 단위대학의 선단식 경영에 이어 대학설립준칙제도가 마련된 97년 이후에 무려 23개의 대학(4년제 대학 11개)이 개교하여 수유·공급이 무너진 예견된 결과이며, 이러한 위기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지방대학들의 노력이 대학 특성화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II. 지방대학의 특성화 추진현황

지방대학들의 특성화 추진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최근의 연구들로는 오영재·박행모(2003), 김현철(2002), 한국대학교육협의회(2001) 등의 연구가 있다. 이들 연구들에서 밝혀진 지방대학 특성화 추진현황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지방대학 특성화는 정부의 시책에 부응하려는 의지가 많이 반영되는 등 대학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는 형태로 진행되었다(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01)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즉, 1990년 이후 정부의 유도로 본격화된 대학 특성화 정책은 방향성 정립이 타율적이고 관행적이며 타 대학사례를 모방하는 수준의 목표 설정을 하고 있으며(김현철, 2002), 이러한 지방대학의 특성화 노력은 1998년에 가장 집중적으로 많게 나타나다가 다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대부분의 지방대학들이 특성화를 추진하게 된 외적 동인으로 세계화, 정보화, 개방화, 지방화라는 시대적 추세와 그에 따른 학문과 대학 및 산업구조의 변화, 국가·지역사회의 요구 변화를 가장 많이 상정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지역사회의 여건이다. 요인별 빈도에 있어서는 세계화, 정보화, 개방화, 자율화 및 지방화의 시대적 요구와 대학시장의 구조적 변화가 상대적으로 많은 점으로 보아, 지방대학들이 특성화를 추진하게 된 배경이 대학 외부의 시대적 추세와 대학시장의 구조 변화에 대한 '반응'이라는 사실이 확인된다.

대학 규모에 관계없이 공히 교육 중심 대학을 지향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지만, 중·소규모의 지방대학에서는 실용교육을 통한 전문인력 양성이 가장 보편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반면, 대규모 대학에서는 우수 기술인력 양성, 학부 중심 직업교육 지향, 종합복지·첨단정보·선진교육, 창의적 전문인육성, 교육내용과 방법의 개선을 통한 실용성 제고 및 인성교육 등 다양한 형태의 특성화 교육목표가 제시되고 있다. 지방대학의 특성화 사업 중 이와 같은 교육영역의 비율이 약 45%를 차지하고 있다(오영재·박행모, 2003).

또한, 지역사회의 자원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 및 개발, 산·학·연 협동체제 구축을 통한 산업발전의 기여와 지원체제 구축, 평생교육을 통한 지역사회에의 봉사를 통한 지역과의 네트워크 구축을

제시하고 있다. 지방대학들은 대체적으로 1~2분야의 집중육성 분야를 선택하여 특성화를 추진하여 비교우위의 경쟁력 확보·강화를 위한 선택과 집중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경향이다.

Ⅲ. 지방대학 특성화의 문제

1. 대학 특성화 개념의 불명료성

대학의 특성화(specialization)란 대학조직 및 구성원의 수월성 확보를 위한 전략(Barrow, 1996)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즉, 대학이 조직의 생존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른 대학과의 차별성을 강조함으로써 상대적 장점을 발견하고 개발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전과 달리 대학간 생존을 위한 경쟁이 격심해지면서, 각 대학은 상대적 장점을 개발하고 강화하기 위하여 핵심사업을 발견하고 이를 중심으로 교육 및 연구 기능의 전문화와 기능적 차별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대학의 생존을 위한 종합적인 노력이 특성화된 것이다(오영재·박행모, 2003). 이렇게 볼 때, 지방대학 특성화란 지방대학이 지역사회의 산업과 밀착된 특성 분야를 선정, 다른 대학과 차별화된 전략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여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는 것(김희복, 2000)을 말한다.

그러나 이처럼 상대적으로 명료하지 않은 대학 특성화 개념을 통해서는 대학 특성화의 하위 구성 차원이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 실천과정에서 오류가 나타날 가능성이 많다. 예컨대, 기존의 대학 특성화는 암묵적으로 '잘 나가는 학과(학부)'를 집중 육성하여 특정 대학을 대표하게 함으로써 단위 대학의 경쟁력을 제고한다는 의미로 사용되어 왔다. 대학 특성화를 이런 의미로 사용하고, 그러한 특성화로 대학의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할 때, 기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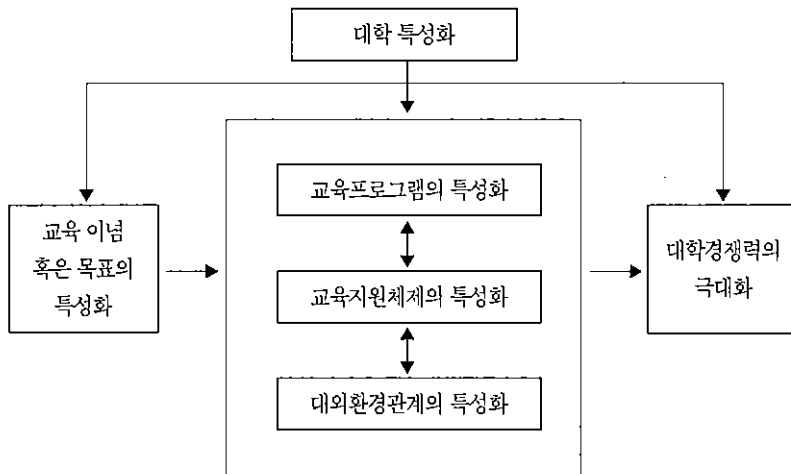
한국 대학들이 거의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경쟁력 없는 백화점식 학과운영이 가져온 여러 근본적인 문제점과 병폐는 그대로 남을 수밖에 없다.

본 연구에서는 대학 특성화를, 단위대학의 생존과 발전을 위해 대학체제를 구성하고 있는 핵심요소들과 그 관계를 타 대학과 차별화하여 단위대학의 경쟁력을 극대화하는 지속적 노력의 총체라 정의한다. 이 때 대학체제를 구성하고 있는 핵심요소들이란, 대학의 교육목표, 교육프로그램, 교육지원체제 및 대외환경관계를 의미한다. 대학 특성화는 이러한 대학체제의 핵심 요소들 전반에 적용되는 넓은 의미를 가진 개념으로 정의될 필요가 있다. 즉, 이와 같은 대학 특성화 개념 속에서는 대학 특성화를 소위 '잘 나가는 학과(학부)'를 그 대학의 대표적 학과(학부)로 특화하거나 대학평가에 대비하는 수동적 반응 등 수동적·단기적 전망에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목표와 교육프로그램, 대학경영 및 환경과의 관계 등을 중심으로 한 능동적·장기적 전망에서 접근하고 있다. 이러한 대학 특성화의 개념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 1)과 같다.

이 때 교육이념 혹은 목표의 특성화는 어떤 수준(학부, 대학원)에서 어떤 학생을 길러낼 것인가에 관한 목표정립을 말하며, 이에 따라 교육프로그램의 특성화와 학교경영체제의 특성화를 추진할 수 있다. 또 교육목표와 교육프로그램의 특성화에 따라 산·학·연 관계나 대학 간 협력관계가 모색된다.

2. 비특성화 분야에 대한 대비책 미흡

기존 대학 특성화가 소수 학과(학부)를 집중 육성하는 것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비특성화 분야에 대한 대비를 소홀히 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 대학들은 대학의 소재지나 규모에 관계없이 유사한 학부나 학과가 많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여 최근의 대학특성화 정책에 있어서는 지역별 산업지도와 국가전략분야 인력양성 종합계획(교육부 등 14개 정부부처, 2002) 등을 기초로 권역별 육성산업을 설정하고 지역대학과의 연계를 유도하고 있다. 또한 새 정부의 대통령업무보고(교육인적자원부, 2003)에도 지역 인적 자원 개발체제 구축



(그림 1) 대학 특성화의 개념

과 지역 BK 21 사업을 통한 권역별·영역별 특성화 추진사업이 계속 반영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이와 같은 국가차원의 인력개발 특성화 전략은 단위대학의 비특성화 분야에 대한 변화노력과 병행되지 않으면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 비특성화 분야를 방치한 채 일부 학과(학부)의 특성화만으로는 특성화의 시너지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예컨대, 많은 지방대학에 설치되어 있는 기초과학분야 학부(학과)는 신입생 모집과 유지에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야이다. 또한 인문 사회과학 분야에서도 수도권과 유사한 학부(학과)는 수도권을 향한 학생이동을 가능하게 하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

Ⅳ. 지방대학 특성화의 미래과제

지방대학 특성화의 미래과제는 현 특성화 전략의 한계에 기초하여 특성화 대학으로의 변화, 비특성화 학과에 대한 재구조화, 대학연합 및 인수·합병 등 세 단계로 제시할 수 있으며, 이 세 단계는 상호 밀접한 관련 속에서 진행된다.

1. 특성화 대학으로의 변화

현재와 같이 각 단위대학의 1~2분야를 집중 육성하는 차원의 특성화로는 특성화의 효과를 기대하는 데 한계가 있다. 보다 거시적이고 단계적인 특성화 전략이 요망된다. 무엇보다 간학문적인 통합학문구조를 만들어 단위대학 전체의 학문적 재구조화를 시도할 필요가 있다. 이는 기존의 전통적 학문구분과 학과체제에 기초한 대학편제를 과감하게 재구조화하는 접근이며, 특히 지방 소규모 대학에서 효과가 있는 전략이라고 보여진다.

무엇보다 단위대학의 교육목표와 이념을 확립해

야 한다. 어떤 수준(학부/대학원)에서 어떤 학생(교양/직업/학문)을 양성할 것인지에 대한 비전 설정이 우선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 후 특성화 대학으로의 변화를 추진할 수 있다. 이 때 특성화 대학이란, 특정 복합학문분야를 중심으로 단위대학의 역량을 결집하여 그 분야에서 국내·외의 타 대학보다 비교우위의 교육경쟁력을 가지는 대학을 말한다. 예컨대, 천편일률적인 ○○대학이 아니라, 해당 대학의 특성화 분야가 부각되는 ○○경영행정대학, ○○문화예술대학, ○○보건의료대학, ○○인간복지대학, ○○생명환경대학, ○○건축디자인대학, ○○도시공학대학, ○○평생교육대학, ○○직업기술대학, ○○국제문화대학, ○○외국어대학, ○○미주(유럽, 동아시아)지역문화대학 등과 같이 학교명을 바꾸는 방안이다.

또한 대학의 소재지와 인접 산업구조를 고려하여 특성화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서울은 미주지역, 부산은 일본과 인접하고 있으므로 동북아지역, 대구경북지역은 섬유산업이 발달되어 있으므로 이탈리아 섬유산업과 연계하기 위하여 이탈리아 지역, 인천은 중국과 가까이 있으므로 중국지역 등을 특화시키는 것이 그 예이다(이학춘, 2000).

2. 비특성화 학과(학부)의 재구조화

대학설립 초기에 백화점식으로 설치된 학과들을 조정하여 특성화 대학으로의 변화를 시도하는 과정에는 교수집단간에 엄청난 대립과 갈등이 유발될 수 있다. 따라서 대학 공동체 구성원들의 공생의 철학에 대한 합의와 실천이 필요하다. 특히 비특성화 학과의 재구조화가 최대의 난제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비특성화 학과 교수들의 소외와 직업적 생존에 대한 불안은 결코 해결하기 쉽지 않은 문제들을 야기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능성은 대

학행정구조조정 과정 사례를 분석한 오영제(2001)의 연구에 잘 암시되어 있기도 하다.

우선 생각할 수 있는 방안은 기존 학과(학부)를 최대한 활용하여 간 학문적인 중층학문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예컨대, 자연과학의 경우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의 통합을 시도할 수 있다. 수학, 물리, 화학, 생물학과를 응용과학의 기초학부로 두고, 그 위에 정보공학, 생명공학, 환경공학 등 2~3가지의 특성화 학부를 세우는 일종의 기술공학학문 중층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또한 외국어학과와 경영행정계열의 경우 기존의 영어, 중국어, 일본어, 독일어 등의 외국어 관련 학과를 인문사회계열의 기초학부로 하고 그 위에 기존의 법, 경영, 행정, 무역, 사회복지 등을 국제화와 문화를 키워드로 특성화하여 세우는 가칭 국제문화(사회과학)학부로 통합하는 방안이다. 인문학의 경우에는 철학, 역사, 심리학, 국문학 등을 기초로 하고 예술과 창작, 영상, 애니메이션 등을 중층으로 구성하여 인간과 언어를 중심으로 하는 가칭 인간예술학부로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때 전산과 영어는 모든 학부의 필수과목이 된다.

이것은 학문의 고유한 성격을 살리며 직업·응용 지향적인 대학교육 추세를 담아내고, 나아가 교수들의 직업적 안정을 보장해주는 개인과 조직의 한 가지 공생전략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장차 다가올 대학간 연합과 인수·합병에 대비하는 현실적 방안이 될 수도 있다.

3. 대학 간 연합, 인수·합병 대비

세 번째 단계는 장차 다가올 대학 간 연합과 대학간 인수·합병에 대비하는 것이다. 대학 간 협력 체계 구축은 이미 1980년대부터 주장된 것이다. 그러나 21세기 대학 간 협력은 기존의 논의보다 폭넓고 근본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개념이다. 기존의

대학협력 개념이 교육과정 운영, 교수 교류, 공동연구의 추진, 도서관 시설의 공동활용, 학사의 공동계획 및 등록사무의 협력, 공동구매를 통한 학교경영의 합리화, 해외연수의 공동계획 및 실천, 특정 교과목에 대한 계절제 학기운영과 공동수강, 환경문제에 대한 공동대처, 합리적인 정보의 교환(유인종외, 1983: 65~66) 등에 국한된 기술적인 측면에 국한되는 것이라면, 오늘날 연합대학이나 대학연합은 특성화 대학 간에 공동 변형을 도모하고 필요하다면 학과(학부)를 서로 교환하는 혁명적인 개념이다. 실로 난제임에 틀림없지만 외면하여 피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닌 것으로 보인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도 이미 그러한 변화에 대비하거나 그 변화를 촉진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준비를 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대학들에게는 이러한 변화에 대비하는 자체 진단과 준비가 요구된다 하겠다.

V. 맺는 말

시장과 경쟁이 강조되는 신자유주의 교육이념으로 대학체제의 혁명적 변화가 도래하고 있으며, 이는 백화점식 양적 팽창에 주력해 온 지난 대학정책의 필연적 결과이기도 하다. 특히, 신입생 충원과 재학생 유지 및 졸업생들의 취업에 있어 유래 없는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지방대학의 경우에 있어 생존을 위한 획기적인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지방대학들은 정부의 대학교육정책에 순응하는 소극적인 접근으로 이 위기를 타개하기 어렵게 되어 있으며, 보다 근본적이고 과감한 대학체제의 변화만이 대학의 존립과 발전을 기약할 수 있다.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대학 육성을 주요 국정지표의 하나로 설정하고 있는 참여정부에서는 지역균형발전의 중심체로서 지방대학을 육성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지역 BK 21' 사업, 대학-산

“

지방대학들은 정부의 대학교육정책에 순응하는
소극적인 접근으로 이 위기를 타개하기 어렵게 되어 있으며,
보다 근본적이고 과감한 대학체제의 변화만이
대학의 존립과 발전을 기약할 수 있다.

”

업체 간 연계를 통한 열린 대학체제 구축, 인적자원
개발회의와 지역혁신 네트워크 구축 등 다각적인
정책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 차원의 노
력과 함께 지방대학들의 자체적인 변화 노력이 뒤
따라야 한다.

위와 같은 최근 지방대학의 대내·외적 환경변
화에 기초하여, 본고에서는 기존의 지방대학 특성
화의 추진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 미래과제를
제시해 보고자 하였다. 하나의 탐색적이고 문제제
기 수준의 시론에 불과하지만, 좀더 정교한 대학 특
성화의 모형개발과 지방대학 육성정책 수립에 참고
가 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교육부 등 14개 정부부처(2002). 국가전략분야 인
력양성 종합계획.

교육인적자원부(2003). 주요 현안 및 정책과제. 대
통령업무보고 자료.

김현철(2002). 한국 사립대학의 특성화 정책 분석
연구. 고려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희복(2000). “지방대학의 특성화 : 경성대의 사
례를 중심으로.” *대학교육*, 103, 62~67.

이학춘(2000). “지방대학 육성을 위한 제도적 방안
- 지역사회와의 연계방안을 중심으로 -.” *지
역 간 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대학 육성방안*.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제 5회 대학교육정책포럼.
오영재(2001). “고려대학교 행정구조조정 과정에
관한 사례연구.” 『*교육행정학연구*』, 19(2),
387~417.

오영재·박행모(2003). “지방사립대학의 특성화
전략과 그 효과에 관한 연구.” 『*교육행정학연
구*』, 21(1), 239~268.

유인중 외(1983). 대학간 협력체제에 관한 연구.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대학교육협의회(2000).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대학 육성방안. 제 5회 대학교육정책
포럼.

한국대학교육협의회(2001). 2000년도 대학교육개
혁 사례집 - 대학 특성화 사업 -. 자료 RM
2001-13-219호.

Barrow, C.(1996). “The new economy and
restructuring higher education.” *Thought &
Action*, 12, 37~54.

오영재

고려대 문과대학을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교육행정을 전공하
여 교육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고려대 인문대학 교직교
수로 재직 중이며, “학교행정공간의 기능과 구조에 관한 해석적
연구” 등 다수의 논문과 『청소년복지론』 등의 저·역서가 있다.
현재 한국청소년복지학회 회장으로 봉사하고 있기도 하다.